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받으려다가
찍혀진 번호를 보고 움짱 놀라며,
그대로 벨이 울리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뚜껑도 열고 싶지 않은
핸드폰 번호의 주인공.
건널목에서 마주 칠 듯한 사람을
영뚱한 간판을 쳐다 보며
걸어 가고 싶은 충동이 이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 치고 싶지 않은 사람.
보내 온 e-mail을 열어 보지도 않고
지워 버리고 싶은 이름.

때만 되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고,
손이 닿을까봐 조심하는 눈초리.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가도 되는데,
일부러 화장실을 들렀다가 가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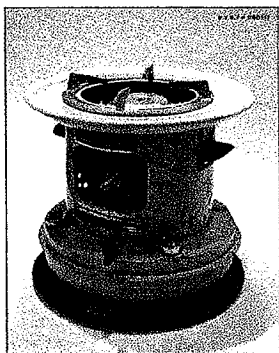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를 받고 싶고,
e-mail을 열어 보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러 가자고
찾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뎌 그랬지▶ '곤로'를 아시지요?
가스 레인지가 나오기 전, 석유를 사용해 성냥불로
불을 붙이던 Portable 취사기. 손잡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심지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화
력을 조절하였죠. 옆에 붙어있던 자그마한 검침바
늘로 석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윽음과 석유냄새가 심했지만 그래도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곤로에는 노란 양은 냄비가 가장 잘 어울렸다는
생각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39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9월 28일
☎520-9464/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등 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우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자녀에
대한 눈물겨운 희생과 사랑이 품어준이라는 등지 속에
절절이 담겨져 있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포수가 무서워 등지 속에
이리저리 감추어 날개가 자랄 때까지
가슴조리며 길러 넓은 세상으로 날려

마음껏 날개를 펴며 살기를 바라고
세 등지 틀어 초대할 날을 기다리며 있었다니
귀여운 새끼 새 두 마리를 안고
다 허물어져 가는 등지를 찾아 왔니
아직도 받아야 할 어미의 사랑이 남아있지
다시 시작하자
이제 조금 남은 사랑 마음껏 쏟으며
잘 해 보자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잖니
사랑을 배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 보내 주고 싶구나. 나의 등지가 허물어지고 날개를 접을 때까지
이제 날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사랑을 베풀며 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 가려무나
다시 돌아와도 어미는 등지에 없고 아련한 추억 속으로 들어가
너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어미는 영혼을 주신 자에게 돌아가고 없을 것이다

엄마가 딸에게
세탁할 때에는
옷에 붙어있는 주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라
괜히 나중에
투덜대지 않으려면 말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쁜 아내는 실종이 나도
공감을 잘하는 아내는
평생 사랑스럽다
예쁜 여자보다는
평생 사랑할 사람을 찾아라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9 (시편 84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1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4-7 민 12:1-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2) "은유한 것"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63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9.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8	이규임	한상미	다 같이	김반석, 김성국
5	이재영	한상순	김영길, 신경화	권정호, 김흥구
12	장현중	한정옥	우리는(1)	김인원, 김중우
19	정희자	강은미	우리는(2)	김중원, 권오걸
26	지찬영	경덕현	권정호, 강현정	김중건, 김진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이사> 한정옥 집사(규정,규형) 1/9 Elizabethan Gardens, St Heliers ☎ 575-7456
<수상> 정중환(정종일,이선애 집사 아들) Piano Contest에서 3개 부문 모두 1등

2. 정기당회 <일시> 30일(화) 저녁7:30

3. 아동부 Term Break Activity

1)초등부: **Horse Riding**(42 Kaipara Flats Rd. Wark Worth. 09-425-8517)

<일시> 1일(수) Oct. <회비> \$15

<모임> 교회 10시 (North 지역은 윤한나 집사 자택)

2)유치부,유년부: **ZOO** (West Spring)

<일시> 2일(목) Oct. <회비>\$ 5 <모임> 11시 ZOO 정문 앞

*도시락 지참 *부모님들의 자원봉사 Care 바랍니다

4. 봄맞이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예고)

표어: "나를 통해 자녀의 길에 복을 주소서"

"나를 통해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소서"

<일시> 10월 6일(월)-25일(토) 오전 6시

*훈훈한 공기로 새벽이 덮혀진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한 해가 거의 마무리 되
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 위해 이곳까지 온 결정만큼 보다 더한 열정있는 기
도가 자녀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5. Day 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주일(5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토요일 밤에 한 시간
더 빠르게 맞춰놓으세요. 이젠 누가 뭐래도 여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착한 시인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린 서름에 잠길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로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한양 설설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저기 호사스럽게 핀 빛꽃은
한치의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감탄을 짓게 하지만 향기 없이
핀 모란을 생각하면 가슴 몽글한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리다 모
란과 함께 사라지는 찬란한 봄.
우리도 품은 희망을 이루기도, 속
기도 하다 다시 희망을 품고 사
는 게 우리네 인생인가 봅니다.
희망으로 내던던 그 첫 뉴질랜
드의 날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 모두, 모란은 내
년에도 다시 살아 오릅니다